

복고풍 패션의 조형적 표현기법 변화에 관한 연구

이 은 숙⁺ · 장 경 혜^{*}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 계명문화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Change of a Formative Expression in the Restorative Fashion

Eun-Sook Lee⁺ · Geung-Hae Chang^{*}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University of Ulsan⁺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College University^{*}

(2010. 1. 25. 접수; 2010. 3. 5. 수정; 2010. 3. 12. 채택)

Abstract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compare formative expression between the fashion of the end of 19th century - early 20th century and that of the 21st century which were influenced by art nouveau and art deco.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contents in literature, Internet, etc.,.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rmative expression of art nouveau were divided into continuous movement, optical illusion and decorative expression. Continuous movement was used to express fancy and soft images in the end of 19th century, and to express images giving the feeling of speed and tension in the 21st century. Optical illusion was expressed by the movement the thin and soft materials with the body movement and the movement of excessive frills adornment. And in movement produced using thin and soft materials and by the bias cutting method in the 21st century. Decorative expression was expressed as fantasy and decadent image in the end of 19th century and as mild passionate and modern image with color combin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formative expression of art deco were divided into visual simplicity, contrastive loudness, and functional expression. Visual simplicity was expressed as a boyish image in the early of 20th century, but as a complex expression combining simplicity and femininity in the 21st century. Contrastive loudness was expressed by using colors both in the early of 20th century and 21st century. Functional expression was reinforced through the lightening of design and materials in the early of 20th century, but through using bias cutting high tech materials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Formative expression(조형적 표현성), Modern fashion(현대패션), Art nouveau(아르누보), Art deco(아르데코)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Lee

Tel. +82-52-259-2843, Fax. +82-52-259-2843

E-mail : eunsook@ulsan.ac.kr

※ 본 연구는 2008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I. 서론

예술 전반은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의 시간적 예술과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공간적 예술로 크게 분류될 수 있으며 조형예술은 그 후자에 속한다. 패션 역시 3차원적인 인체를 대상으로 인체의 아름다움과 시대적 미의 기준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는 입체성을 띤 공간조형물로서 조형예술의 영역에 포함된다. 각 시대별 패션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해내는 조형적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표현기법에 있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패션은 과거와의 시간적 단절이 아니라 일련의 시대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어 과거의 패션이 어떤 시기에 재유행하더라도 그대로 재현되기보다는 재등장한 시기의 문화적 특성, 소비자의 가치, 취향 등에 의해 재창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복고풍 패션’이란 용어가 등장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1세기에 재등장한 퓨처리즘(futurism)은 1910년대, 1960년대, 2007년에 유행한 트렌드 경향 중의 하나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다. 1910년대의 퓨처리즘이 표현된 패션은 조화, 균형을 부정하고 민첩성, 역동성, 단순성, 편안함을 추구로 하여 강렬한 색채, 기하학적 선, 과감한 비대칭적 구성 등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1960년대는 우주과학의 시대로 우주정복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을 현실로 바꿔놓은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이 시기에 재등장한 퓨처리즘은 직선적, 기하학적, 독특한 재단과 봉제방법, 비닐과 같은 투명소재, 알루미늄 표면효과를 나타내는 가공소재 등을 이용한 경쾌함과 과다한 신체노출을 나타내는 표현기법이 유행하였다. 2007년의 퓨처리즘은 최첨단 과학화, 컴퓨터 문화 창조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추구되면서 플라스틱, 비닐, 금속성 소재, 신소재 등의 소재를 강조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나의 동일한 용어가 각 시대의 패션 트렌드로 등장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표현기법에서는 시대적 차이를 느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패션이 과거의 패션들을 재해석하여 다양한 유행으로 창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행의 영

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예술사조 역시 과거와 현재에 있어 동일한 용어로 호칭되어지나 각각의 조형적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기법은 시대간 차이를 느끼게 한다.

패션에 나타난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조형적 표현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이정원·조규화¹⁾의 아르누보 양식을 따른 장식디테일에 대한 디자인 사례를 바탕으로 아르누보 디테일 양식의 미적 특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 이미지를 드레스 디자인에 적용한 연구, 이수철·박상오²⁾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아르누보 시대의 문양 및 직물, 색채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현대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 연구, 김주영³⁾의 아르데코 양식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순홍·제윤⁴⁾의 근대복식에서 현대복식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서로 상반된 특성을 지닌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예술양식이 현대복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본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두 예술사조의 발생 시기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 현대에 이르러 복고풍으로 재현되었을 때의 조형적 특성간의 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니며, 아울러 각 예술사조의 개념 및 특성을 토대로 하여 도출한 조형적 표현특성에 의한 내용분석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르누보·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와 21세기의 복고풍 패션에서 재현된 아르데코와 아르누보의 조형적 표현기법 간에는 어떠한 시대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시된 작품사진은 아르누보·아르데코가 형성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작품사진과 21세기 복고풍 패션 중에서 패션매체와 유행 예측기관에서 발표한 아르누보풍과 아르데코풍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의 작품과 각 예술사조의 이미지를 반영한 작품설명을 참고로 작품사진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두 예술사조의 조형적 표현성은 각 예술사조의 개념 및 조형적 특성, 두 예술사조를 반영하는 작품사진 분석을 통하여 아르누보는 연속적 유행성, 시각적 착시성, 장식적 표현성으로, 아르데코는 시각적 단순성, 대비적 강렬성, 기능적

표현성으로 분류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패션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사진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각 시대적 배경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시대적 취향 뿐 아니라 과거의 패션 디자인 표현기법을 이해하고 미래의 패션 디자인 방향과 표현기법을 예측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예술사조의 개념 및 조형적 표현 특성

1. 아르누보의 개념 및 특성

1) 아르누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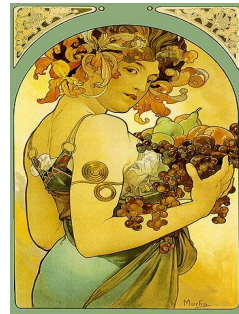
아르누보의 명칭은 1895년 12월 빙(Samuel Bing, 1838-1905)이 새로운 작업방향을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파리에 세운 화랑 메종 드 라르누보(Maison de L'art Nouveau)에서 유래한다.⁵⁾ 이는 ‘Art’와 ‘Nouveau’ 즉, ‘신예술’이라는 뜻⁶⁾으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가속화된 삶의 기계화, 평준화, 비인간화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나 표현양식으로는 급변해가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형태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나타난 예술운동이 아르누보였다.⁷⁾ ‘제2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아르누보’는 영국·미국에서의 호칭이고 독일에서는 ‘유겐트 양식(Jugendstil)’, 프랑스에서는 ‘기마르 양식(Style Guimard)’,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 양식(Stile Liberty: 런던의 백화점 리버티의 이름에서 유래)’으로 불려진다.⁸⁾

18세기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진보를 가져왔고 유럽 전체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으며, 그와 함께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은 수공예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주는 제품외관의 예술성을 떨어뜨렸고 품질이 떨어진 제품들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국의 러스킨(John Ruskin)은 이러한 기계

에 의한 대량생산이 예술과 공예의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소멸시킨다고 생각하여 올바른 예술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새로운 예술 공예운동 아르누보가 전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⁹⁾

2) 아르누보의 조형적 표현 특성

건축, 공예품, 조각 등의 장식미술에서 출발하여 점차 모든 미술 분야에 나타난 아르누보는 자연에서 유래된 아름다운 곡선과 유연한 곡면을 특징으로 유기적 곡선의 장식적 패턴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는다. 즉 공작, 백조 등의 자태, 포도덩쿨의 줄기, 꽃봉오리 등의 유기적 생명체에서 흘러나오는 생동적인 힘과 생명력을 유연한 리듬과 울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장식적 가치를 두고 있다. 특히 아르누보의 대표화가인 **Alfons Maria Mucha**의 <그림 1>에서도 보듯이 주로 곡선을 사용하여 식물을 표현한 까닭에 ‘꽃의 양식’, ‘당초양식’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림 1>

<그림 1> 아르누보의 대표화가 알폰스 마리아 무하의 Fruit, <http://blog.naver.com/bonny21/80056214090>

아르누보의 조형적 표현 특성은 곡선을 이용한 연속적 유동성, 시각적 착시성, 장식적 표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속적 유동성은 아르누보의 표현대상인 식물, 넝쿨에서 느끼게 되는 물결치는 듯한 길게 이어지는 유기적인 곡선의 표현과 식물의 뻗어나가는 생명력의 표현에서 느끼게 되는 강인한 연속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시각적 착시성은 연속적 유동성의 곡률경도와 인체의 움직임이 어울려져 나타나는 운동

감 또는 울동감의 착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장식적 표현성은 각 예술사조간의 두드러진 차별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독창적인 장식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아르데코의 개념 및 조형적 표현 특성

1) 아르데코의 개념

아르데코 (Art Deco)는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현대장식미술·산업미술국제전’ (Paris 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 De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s)의 약칭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아르 데코라티프(art dé coratif: 장식미술)의 약칭이며, ‘1925년 양식’이라고도 한다.¹⁰⁾ 이는 그 시대의 서구 문화의 현대성을 확립하기 위한 갈등과 대립 과정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가 적극적으로 개입되고 여러 시대들의 예술을 이끌어 서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부딪히면서 형성된 혼성적이며 절충적인 양식이다.¹¹⁾ 이러한 아르데코는 개념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의 아르데코는 아르데코 양식 자체가 서구 문명의 근대성을 확립하기 위한 갈등과 대립 과정 속에서 아르누보에서 바우하우스적 디자인이 확립되기까지의 중간적인 양식으로 공업적 생산방식을 미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얻어진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하였다.

아르데코 양식은 기계는 인간에게 모든 면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물건이라는 믿음 아래 기계와 예술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20세기의 다양한 예술양식을 수용하면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또한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한다는 개념과 기계의 대량생산을 위한 새로운 모더니즘의 철학을 소개하며 장식예술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¹²⁾

2) 아르데코의 조형적 표현 특성

1905년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과 유럽열강들은 식민지 지배를 통해 풍족한 원료를 바탕으로 가격의 저렴화와 형태의 규격화를 초래하여 제품



<그림 2>

<그림 2> 아르데코의 대표화가 타미라 드 렘피카의 Young Girl With Gloves,
<http://blog.naver.com/abcclub123/130025506179>

의 대량생산을 시도하면서 전반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냈다. 이는 대중들의 생활양식과 취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¹³⁾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는 여자 의상의 간소화 또는 남성화라는 변혁을 일으켰고 기계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가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으로써 운동에 적합한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여러 의상들의 대중화와 기성복 체제의 정착에 일조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탄생한 아르데코는 기계의 대량생산화, 제품의 기능화, 예술성이 함께 어울려지면서 기본형태의 반복, 동심원(同心圓), 지그재그 등 기하학적인 것에 대한 취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그림 2>에서처럼 기하학적 형태는 합리적이거나 기계적인 해결에 의해서만 처리되지 않았고 우아한 이미지가 가미되어 20세기 장식 예술의 현대화를 촉진시켰다. 따라서 아르데코의 조형적 표현 특성은 시각적 단순성, 대비적 강렬성, 기능적 표현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각적 단순성은 시각에서 느낄 수 있는 외형적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는 3차원의 입체적인 인체의 실루엣을 무시한 이차원적이고 직선적인 실루엣, 색채의 단순화, 장식적 요소의 배제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시각적 단순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대비적 강렬성은 대비적 요소간의 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특징으로 색상의 보색대비, 상이한 소재의 배합, 정반대되는 이미지간의 조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기능적 표현성은 기계생산의 용이성을 추구하

고 패션의 기능미를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대량생산의 용이함,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모던한 모드와 신축성, 유연성을 지닌 하이테크 소재를 이용한 움직임의 기능성, 화려한 장식을 억제하고 기능적인 부분만을 충족시키는 심플한 디자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복고풍 패션에 표현된 조형적 표현기법

1. 아르누보 표현기법

아르누보의 일반적 표현특징은 연속적 유동성, 시각적 착시성, 장식적 표현성으로 크게 분류되며, 19세기 말과 21세기의 패션을 3항목으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속적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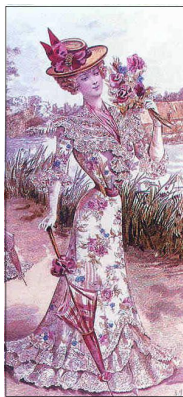
아르누보 양식은 자연에서 추출한 생명력이 있는 동식물의 유동적 형태를 길게 이어지는 자연스런 유기적인 선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유기적인 선은 대상물 전체 또는 일부를 이루는 선을 의미하거나 예술가의 창조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선이 해당되는 것으로 불균형하고 개성적이며 변화가 큰 것

이 특징이다. 이러한 선은 선을 긋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약하거나 가늘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술가의 감정을 상징하며 율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표현되어지므로¹⁴⁾ 의도적인 좌우대칭이나 직선적 구성에서 일탈된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모티프를 이용하여 곡선·곡면의 집적에 의한 유동적인 디자인 미 창출에 초점을 둔다. 즉 추상적이고 비대칭적인 곡선, 교차곡선, 구불구불한 곡선은 음악적으로 율동하는 듯하고 섬세하며 힘을 지닌 아르누보의 상징적인 선으로 이용되었다. 이 당시 사용된 추상적이고 비대칭적이며 유기적인 꽃문양과 곡선무늬는 아르누보의 독특한 곡선양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 패션의 연속적 유동성은 실루엣과 무늬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실루엣 에서는 소매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허리를 극도로 조여 주며 치마를 넓게 펼친 듯한 아우어글래스 실루엣(그림 3)과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강조하며 힙을 돌출시킨 S자 스타일(그림 4)은 이 시대의 대표적 아르누보 양식이 가미된 스타일로서,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하여 물결치듯 구불거리면서 길게 이어지는 리드미컬한 실루엣 곡선이 두드러졌다. 무늬에서는 <그림 5>에서 보듯이 식물의 넝쿨 형태를 연상하게 하는 파장이 긴 부드러운 유동성 이미지, 유기적인 모티프를 이용한 좌우대칭, 직선적 구성을



<그림 3> 1890년대 정홍숙 (200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41



<그림 4> 18905년대 정홍숙 (200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43



<그림 5> 1890년대 정홍숙 (200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41



<그림 6> 08 S/S Alexander McQueen, <http://www.ifp.co.kr/>

고의로 파괴한 곡선, 곡면의 집적에 의한 유동적인 미 등이 강조된 무늬 등이 이용되었다. 반면에 21세기 재현된 아르누보 패션의 연속적 유동성은 19세기 말과는 달리 표현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실루엣, 네크라인, 여밈 라인, 가방, 모자, 구두 등의 서브 아이템 등에 까지 확대되어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여성미를 한층 더 강화시킨 곡선미에 초점을 두었다. 실루엣에서는 19세기 말 아르누보 시대의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S자 스타일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면서 네크라인, 여밈 라인 등도 아울러 유선형으로 표현되었다. 무늬에서는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형상화시켜 더욱 화려한 곡선 무늬로 표현되었다. 기하학적인 모티브의 연속성에서 오는 곡선, 파장이 짧은 곡선,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용수철 형태의 곡선,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켜 인간의 생명력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강인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곡선, 비비드 톤의 연속적 무늬표현을 통한 강렬한 유동적 곡선 등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그림 6>의 모자에서도 이러한 유기적인 곡선이 가미되었는데 화염, 넝쿨 등의 생명력을 나타내듯 강인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연속적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시각적 착시성

19세기 말 패션의 시각적 착시성은 인체의 움직임에 드러내 보이는 얇고 부드러운 질감의 직

물에 해초나 식물의 넝쿨 등을 연상시키는 길고 감각적인 유연한 선들의 표현을 통하여 얻어졌다. 주로 시폰, 조젯, 크레이프나 얇은 리넨, 레이스 등은 움직임의 파장을 길게 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하는데 효과적인 직물로 감각적인 여성적 이미지의 극대화뿐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형상 표현에 적절하였다. 또한 프릴장식의 파용은 움직임의 극대화를 불러일으키며, 층층이 길게 이어지는 프릴과 일정간격으로 장식된 리본, 세로 줄무늬 등의 연속적 표현성은 길이의 착시와 더불어 유동적인 곡선 길이의 극대화를 얻게 하는 착시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그림 7).

21세기의 패션 또한 19세기 말의 특징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시폰, 리넨, 실크 등 부드럽고 얇은 직물의 사용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연출되는 하늘거림으로 나타나 여신과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착시를 느끼게 하였다. 이는 실루엣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그림 8>의 트라페즈 라인, <그림 9>의 롱 플레어 라인과 인체의 움직임이 조화되면서 시각적 율동미를 볼 수 있다. 여기에 기하학적인 바이어스 재단법과 방사형의 문양이 가미되어 움직임의 극대화적 착시성이 병행되어 나타났다(그림 10).

3) 장식적 표현성

19세기 말 아르누보는 황홀한 행복감과 공중



<그림 7> 1870년대 금기숙 (2002), 현대패션 100년, 교문사, p.18



<그림 8> 08 S/S, <http://www.ifp.co.kr/>



<그림 9> 08 S/S, <http://www.ifp.co.kr/>



<그림 10> 08 S/S Prada, <http://www.ifp.co.kr/>



<그림 11> 1870년대
금기숙 (2002),
현대패션 100년, 교문사,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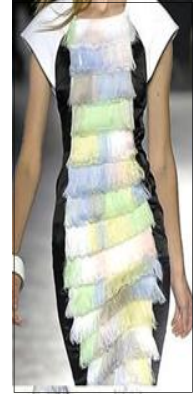
<그림 12> 08 S/S
Sonia Rykiel,
<http://www.ifp.co.kr/>



<그림 13> 08 S/S
Missoni,
<http://www.ifp.co.kr/>



<그림 14> 09 S/S
ANNA MOLINARI,
<http://www.okfashion.co.kr/>



<그림 15> 08 S/S
<http://www.ifp.co.kr/>

에 떠도는 듯한 느낌,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환상 등의 상징주의적 감수성과 직결(에드워드 루시, 1987)¹⁵⁾되면서 극한 장식과잉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세기말적 악취미란 비난 속에서 자연의 순수한 힘과 무한한 창조활동을 표출하였다. 예술적인 것에 전적인 투자를 한 아르누보 양식은 어깨와 소매를 강조한 주름 곡선과 가슴의 리본 및 레이스, 깃털 등의 과용, 턱까지 올라간 차이나 칼라 등이 대표적 표현방식으로 환상적이지만 퇴폐적이기도 한 무겁고 부담스러운 장식적 이미지 표현기법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사쥬와 프릴로 장식된 모자를 더함으로써 장식성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그림 11>에서 처럼 이 당시 여성들은 힙 부근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리플을 층층이 달거나 커다란 리본을 묶는 등의 사치스러움과 여성스러움, 퇴폐스러움이 공존되는 이미지 장식과 더불어 수직과 수평의 장식 혼합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여성들은 버스를 입고 곁에는 커다란 리본을 묶는 등 장식을 하여 매력적인 여성미를 과시하였다. 리플, 리본, 브레이드, 레이스, 꽃 등의 과도한 장식은 아르누보 특징을 대변하는 디테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21세기는 과거의 환상적이지만 퇴폐적이기도 한 무겁고 부담스러운 장식분위기와는 다르게 온화함, 정열, 모던함이 주된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자수, 실크,

레이스 등의 소재사용과 병행한 리플장식을 통한 여성적 이미지의 극대화(그림 12), 강렬한 원색의 프린트를 통한 정열적 이미지, 파스텔 톤과 비비드 톤과의 조화에서 오는 부드러움과 화려함이 동시에 대치되는 표현기법이 활용되었으며(그림 13), 19세기말 아르누보의 장식적 표현법과 비슷하게 수평의 드레이프와 수직의 리플이 혼합된 장식성(그림 14), 프린팅 장식(그림 15)이 나타났다.

2. 아르데코 표현기법

아르데코의 일반적 표현특징은 시각적 단순성, 대비적 강렬성, 기능적 표현성으로 크게 분류되며, 20세기 초와 21세기의 패션을 3항목으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각적 단순성

과거 20세기 초 패션의 시각적 단순성은 형태의 본질에 접근하여 단순함을 추구함으로써 기하학적이거나 단순화된 표현기법에 초점을 두었다. 무늬에서는 <그림 16>에서 꽃이나 동물, 인간의 형체를 모티브로 사실적인 표현의 묘사가 아닌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되면서 단순미가 두드러졌다. 실루엣에서는 과거의 인체를 억압하던 스타일에 비해 과격적이고 합리적인 의상이

전개되어 모던스타일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인체의 허리 곡선과 힙의 곡선을 완화시키고 눈에 띄는 무리한 장식을 배제한 보이쉬하거나 가르송 스타일 표현기법이 두드러졌다(그림 17).

그러나 21세기는 과거의 직선적인 심플함에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복합적인 기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무늬에서는 기하학적으로 추상화되고 양식화된 무늬 표현보다는 꽃을 위주로 크고 화려한 표현기법이 등장되었으며, 과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상징화되었지만 오늘날은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의 상징물로는 한정된 스타일로 제한시키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이 우선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리를 강조하는 X실루엣에 직선적인 네크라인과 비대칭적인 직선 무늬를 통해 시각적인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복합적 실루엣 양상이 두드러졌다(그림 18).

2) 대비적 강렬성

20세기 초 아르데코 양식의 복식은 원색적이고 화려함으로 대변되는 것(박혜원; 1987, 정홍숙; 1988, 조규화·박혜원; 1991)^{16),17),18)}처럼, 주로 검정과 흰색, 회색 등의 무채색과 원색과의 배색사용을 통하여 색채의 대비적 강렬함과 더불어 검정만이 가지는 강렬한 이미지 표현이 강

조되었다. 즉 검정은 세련되고 절제된 이미지를 주면서 다른 색과의 배색이 주는 강한 명시성 효과와 더불어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상을 눈에 띄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모던함과 과격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었다. 전기와 전등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깃불 아래에서 빛나는 금속과 광택을 보게 되었으며, 패션 디자이너들 또한 골드와 실버를 의상에 사용하여 광택의 효과(김주영, 2004)¹⁹⁾와 더불어 이러한 색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짙은 녹색이나 오렌지색, 검은 색 등을 테두리 색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샤넬작품의 실루엣은 단순한 라인이지만 강렬하며 세련된 블랙, 혹은 블랙과 흰색의 대비에 의해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한 반면, Paul Poiret는 색상혁명과 동양적인 영향을 받아 녹색, 자주색 등의 화려한 색조와 현대 회화의 원색적 성격과의 접목을 통하여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9).

21세기 패션에서의 대비적 강렬성 표현기법은 20세기 초의 표현기법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그림 20), 무채색과 원색의 대비(그림 21), 원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현란함을 일으켰다.

3) 기능적 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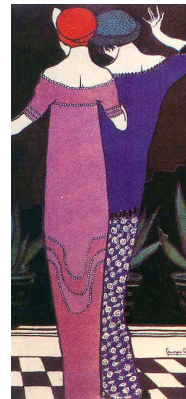
<그림 16> 1920년대 정홍숙 (200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62



<그림 17> 1920년대 정홍숙 (200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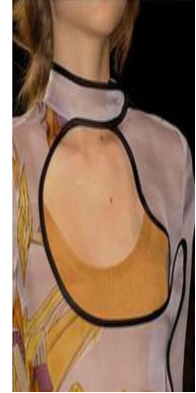
<그림 18> 08 S/S Gucci, <http://www.ifp.co.kr/>



<그림 19> 1910년대 정홍숙 (200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60



<그림 20> 08 S/S ANNA MOLINARI, <http://www.lifenlife.co.kr/1000>



<그림 21> 08 S/S, Eтро, <http://www.brandcody.co.kr/1008>

<그림 22> 1920년대 <http://blog.naver.com/qnnp486/60051161372>

<그림 23> 1920년대 <http://kr.blog.yahoo.com/themeimei/190>

<그림 24> 08 S/S <http://www.ifp.co.kr/>

<그림 25> 08 S/S <http://www.ifp.co.kr/>

20세기 초 패션의 기능적 표현성은 아르누보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과거의 무게와 재료의 무게를 깨부수며 패션의 경량화, 기능화 표현기법에 중점을 두었다. 아르데코양식이 출현하기 전까지 허리를 극심하게 조이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코르셋이 사라지면서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등장되었고 직선적이고 부드러운 주름이 곧고 유연한 라인으로 떨어져 이로 인해 여성들의 움직임은 훨씬 기능적으로 변화되었다. 아르데코 패션 디자이너 중 가장 대표적인 Paul Poiret는 S-커브 실루엣으로부터 여성들을 탈피시켜 코르셋과 페티코트를 없애고 현대적인 직선 실루엣을 선보여 패션의 현대화를 가져왔고, 호블 스커트의 앞 또는 옆 부분에 슬릿을 넣어 이전 보다 훨씬 기능적이고 세련된 룩을 제시하였다(그림 22).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Coco Chanel 역시 여성스러움 보다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곡선을 강조하지 않는 스트레이트 박시실루엣의 보이시한 스타일을 발표(그림 23) 함으로써 기능적이며 비장식적 표현에 가세하였다. 따라서 코르셋과 페티코트의 사라짐과 비장식은 의상의 경량화와 함께 기능화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또한 편안함을 찬미하고, 우아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행되었던 부드러운 직선주름은 소재의 경량화를 촉진시켰고 우아함과 신체 활동의 자유로움 사이를 연결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적인 의

상을 만들기 위해 속옷에만 사용되었던 저지가 재킷겉옷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기능성 소재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형태의 단순성 표현을 증시하여 불필요한 장식과 디자인을 배제하고 왜곡적 스타일 표현 등을 지양하는 'Less is more' 경향으로 나갔으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한 대표적 디자이너로서는 Coco Chanel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비해 21세기의 기능적 표현성은 Less is more보다는 적절한 대체 장식품, 즉 기존의 단추, 지퍼대신 여성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리본의 여밈활용, 바이어스 재단을 통한 기능적 기법이 활용됨으로써 인체 활동의 쾌적함, 편리함을 보다 강화시켰다. 편안함을 위한 소재가 주로 사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저지, 가죽, 실크 등 다양한 소재사용에 다양한 러플과 티어드, 입체적인 플라워 디테일, 접거나 꼬는 등의 입체적 효과(그림 24), 컷아웃을 이용한 비대칭적 구멍(그림 25), 심을 이용한 구조적 디테일, 수공예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면감에 입체적 장식, 수많은 봉제선, 불규칙적인 주름효과 등을 이용하여 복합적인 대조 효과로 표면감을 강조한 장식을 포인트로 부각시키는 다양한 표현기법이 응용되었다.

IV. 결론

아르누보·아르테코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와 복고풍 21세기 패션에서 나타난 조형적 디자인 표현기법 간에는 어떠한 시대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문헌, 패션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사진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19세기 말 아르누보와 21세기 복고풍 패션에서 표현된 아르누보의 조형적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첫째, 패션에서의 연속적 유동성은 19세기 말의 패션은 실루엣과 무늬에 한정되어 나타났으며, 과장이 길고 환상적이며 부드러운 이미지 표현에, 21세기의 복고풍 패션은 실루엣, 네크라인, 여밈라인, 가방, 모자, 구두 등의 서브아이템 등까지 표현이 확대되었으며, 과장이 짧고 속도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표현에 각각 특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시각적 착시성은 19세기 말의 패션에는 얇고 부드러운 소재와 과다한 프릴장식의 사용에 의해 극대화된 움직임의 착시적 현상이, 21세기의 복고풍 패션에는 얇고 부드러운 소재, 바이어스 재단법이 병행되어 환상적 극대화 착시효과가 연출되었다. 셋째, 장식적 표현성은 19세기 말의 패션에는 디테일 사용을 통하여 환상적이지만 퇴폐적이기까지 한 표현기법이, 21세기의 복고풍 패션은 색채사용을 통하여 온화함, 정열, 모던함을 강조한 표현기법과 다양한 표현기법이 응용되어 표면감의 입체적 효과를 부각시키는 표현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세기 초와 21세기 복고풍 패션에서 표현된 아르테코의 조형적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첫째, 패션에서 시각적 단순성은 20세기 초의 패션에서는 보이쉬한 표현기법을, 21세기는 심플함과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복합적 기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패션에서의 대비적 강렬성은 20세기 초와 21세기의 패션간에는 색상을 이용한 표현기법으로 나타나 표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능적 표현성은 20세기 초의 패션은 디자인과 소재의 경량화, 'Less is more'를 통한 기능적 표현이 두드러진 반면, 21세기는 적절한 대체장식품, 바이어스 재단, 하이테크 소재를 이용한 기능적, 구조적, 장식적 표현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두 예술사조가 등장한 시기와 21세기 복고풍 패션으로 재현되었을 때의 조형적 디자인 표현기법 간에는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차이는 각 시대 사람들의 문화적 정서와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로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더라도 시대적 표현기법의 동일성이 매우 적다는 결론을 통하여 복고풍은 단지 과거의 작품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현 시대의 감각이 반영된 재창조의 시각으로 디자인을 기획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예술사조의 특성을 조형요소로 분류, 개념화 한 후 패션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와 21세기 복고풍 패션에서 나타난 조형적 디자인 표현기법 간의 시대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외 패션쇼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예술사조를 대상으로 예술사조가 등장된 시기의 패션과 복고풍 패션으로 재등장된 시기의 패션을 체계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이정원, 조규화 (2008). 아르누보 이미지의 드레스디자인 연구 -장식 디테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2(2), pp.42-58.
- 2) 이수철, 박상오 (2006).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아르누보 문양 및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1), pp.178-188.
- 3) 김주영 (2004). 아르테코 양식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계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이순홍, 제윤 (1999). 아르누보와 아르테코 예술양식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44, pp.235-247.
- 5) Philippe Garner. (1982). *Phaidon Encyclopedia of Decorative Arts 1890-1940*, London: Phaidon

Press Limited, p.56.

- 6) 윤장섭 (1990). *서양 근대 건축사*. 서울: 보성문화사.
- 7) 이경희 (2007). 구스타브 클리트의 회화연구 - 아르누보 양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두산백과사전 (2008. 7. 8). http://www.encyber.com/search_w/
- 9) 장미향 (1998). 스테인드 글라스 이미지를 도입한 미술의상연구 - 아르누보 양식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두산백과사전 (2008. 7. 8). http://www.encyber.com/search_w/
- 11) 장혜량 (1997). 아르데코 양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은지 (2004). 아르데코 양식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 1910년대 양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김종현 (1987). 아르데코 건축의 양식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유은경 (1994). 유기적인 선에 의한 도자의 운동감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에드워드 루시-스미스 (1987). 이대일 옮김 (1991). *상징주의 미술*. 서울: 열화당.
- 16) 박혜원 (1987). Paul Poiret의 Modernism.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정홍숙 (1988). Art Nouveau & 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조규화, 박혜원 (1991). Art Deco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4), pp.381-392.
- 19) 김주영 (2004). 아르데코 양식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계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